



# 계간쟁기

이야기 | 생각 | 문화

가을 2020



## 믿음과 정치

브루더호프와 국가 존 홀리엇

앨커트래즈 감옥의 순교자들 드웨인 스톨츠퍼스

한 걸음 물러서면 평화 이상규

희망을 수업하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정상이라는 포장된 길:  
걷기에는 편하지만,  
꽃은 자라지 않는다.”  
—빈센트 반 고흐



#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가을 2020, 5호

편집자의 편지 원마루 3

가족과 친구들 5

## 특집: 믿음과 정치

브루더호프와 국가 존 홀리엇 6

엘커트래즈 감옥의 순교자들 드웨인 스톨츠퍼스 17

인터뷰: 한 걸음 물러서면 평화 이상규 27

희망을 수업하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34

새끼 오리와 어린 물고기들 이억배 40

쟁기의 책들 43

선구자들: 사무엘 루이스 가르시아 주교 제이슨 랜셀 44

아티스트: 대니 버로우, 돈 피터스

엘리스 팔미지아니, 셸비 맥퀼킨, 이억배

# 계간 쟁기

www.plough.com/ko



## 계간 <쟁기>를 펴내는 공동체를 만나세요

쟁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브루더호프가 펴내는 잡지입니다. 브루더호프는 가족과 미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은 산상수훈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영감을 받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

주, 파라과이, 한국 등에 있는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홈페이지: [brudershof.com/ko](http://brudershof.com/ko)

<쟁기>는 일상의 믿음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신념은 달라도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쟁기>는 독자들과 글쓴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말합니다. <쟁기>는 편집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저자의 글을 실습니다. 기고문은 쟁기의 편집 방향이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피터 말슨, 비어리 홀리엇, 샘 하인, 오지니, 정성혜, 원마루. 번역 위원: 전나무, 오케빈. 디자인: 로잘린드 스티븐슨, 미리엄 벌러슨. 한국판 디자인: 산위에동네.

창간 편집자: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

<쟁기> 5호, 국가와 믿음, 2020년 가을호(2020년 11월 발행)

쟁기출판사 발행, isbn 978-1-63608-017-8

Copyright © 2020 by Plough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표지 그림: A. A. 마리스칼 트론코소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뒤표지 그림: 바미드바의 왕관, 요람 라이안 그림,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표지 안쪽 그림: 알리레자 카리미 모그하담 작품,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편집부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T: 845.572.3455

영국  
Brightling Road  
Robertsbridge  
TN32 5DR  
T: 01580.883.344

호주  
4188 Gwydir Highway  
Elsmore, NSW  
2360 Australia  
T: 02.6723.2213

<쟁기>는 플라우 출판이 펴내는 간행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구독 문의: [info@plough.com](mailto:info@plough.com)

쟁기책방 독서모임: [cafe.naver.com/ploughko](http://cafe.naver.com/ploughko)



## 손 맞잡을 그 날까지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시지요. 가을이 깊어 가는 영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한국의 벗들 덕분에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올봄 시작된 팬데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멀리서 오시는 손님은 커녕 가까운 이웃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전염병 사태가 곧 안정이 되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염병만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으로 사람들이 양극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얼마전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두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교환하기보다 차이만을 강조하고 증오에 가까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슴지 않고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나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외치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일면 진정성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지독한 외로움이 더욱 강렬하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아무리 정치가 사람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마련이라고 해도, 정치 진영들이 자신의 가족과 공동

체를 위한 선량한 이들의 바람을 반목의 도구로 악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대화의 정치를 실천하는 분도 많고, 나아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한국의 생명평화 고운 올림 기도순례자분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겨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함께 모여 성서를 읽고 기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끝에 이들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행동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방법은 함께 걷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와 제주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 위로했고, 태백산과 바이칼 호수같이 높고 광활한 자연으로 찾아가 자연이 주는 평화를 배웠습니다. 그 발걸음은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 나아가더니 유럽에까지 닿아 올해 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영국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들 순례자들이 걸어 온 길을 보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 놀라면서도 '과연 무엇을 위해 길을 걷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저 역시 둔감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곳곳에서 팬데믹의 징후가 나타

## 사람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달 계속된 다음에야 왜 길을 걷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와 치유를 위해 대화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나더니, 봄이 되자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꼼짝 달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달 계속된 다음에야 왜 길을 걷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와 치유를 위해 대화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제아무리 줌미팅 같은 비대면 인터넷 도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SNS가 전세계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돕는다 해도,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걸거나 일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정치적 현장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거나 답답함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독일의 제약 회사가 획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반가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년 봄부터 '정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기기는 하지만 백신만으로 사람들 사이에 패어진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지난 몇 달의 경험을 생각하며 반문합니다. 봉쇄와 고립의 시간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되더라도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네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당장 접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때는 벗들의 손을 잡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거구요.

참 오랜만에 펴내는 <계간쟁기>에도 그런 바람을 담은 글을 몇 편 실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img alt="bird icon" data-bbox="870 305 895 315"/>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뜻한 너도밤나무꽃에서,

원마루 드림

**추신.** 얼마 전부터 몇 분과 함께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아직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 화상 통화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만날 그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기 위한 일명 '쟁기책방'이라는 모임입니다.

얼마 후 시작할 모임에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읽으려 합니다. 격리와 고립으로 마음이 외롭고 힘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며 삶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 이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쟁기책방 모임에는 중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니까요!

독서 모임 안내: [cafe.naver.com/ploughko](http://cafe.naver.com/ploughko)



사진 글쓴이 제공



을 나눌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줄어들면서 공동체 식구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밭을 일구면서 파스타를 만들고, 자체 생산한 식품을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빵 기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빵을 매개로 매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요.

포도나무 집 베이커리 빵을 진열하고 있다.

## 브라질에서 보낸 편지: 전환의 때

브라질 쿠리치비에 있는 포도나무 집(Casa da Videira) 공동체 식구인 클라우디오 올리버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웃과 교제하는지 소식을 전한다.

현재 브라질은 가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기는 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환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지역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곳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 다. 이곳의 큰 강들은 바닥이 드러나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일어난 산불입니다. 기후변화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대처하기에 현 브라질 정부는 무능하고 폭력적입니다. 전 세계 매체가 브라질 정부를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형제자매들과 삶

세상은 종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세상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룩의 아내가 좋은 실례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여러 해 동안 지금의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전환 이후의 삶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환 이후의 삶을 위한 제안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시작했지요. 이 운동으로 경제, 정치, 가족 등의 관점에서 일상적 의미의 변화된 세상은 어떠할지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클라우디오 올리버의 글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lough.com/MutationTime](http://plough.com/MutationTime).



포도나무 집에서 만든 라비올리

# 브루더호프와 국가

존 홀리엇

브루더호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공동체 멤버이자 변호사인 글쓴이는  
공동체가 정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돌아보았다.

**1** 933년 11월, 독일 헤센. 당시는 125명의 남녀, 어린이로 구성된 브루더호프가 뮌헨 산지에 있는 한 농장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공동체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국가사회주의 나치 정부로부터 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입증하는 국민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시를 통보 받았다. 정부 관

리는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단수용소에 감금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이 수용소는 이 정권이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반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투표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독일 정부의 정책을 승인하고 이를 동의하며 이 정책이 자기 자신의 확신과

---

존 홀리엇은 18년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멤버이자 법무 자문 변호사로 섬기며, 뉴욕 우드크레스트 공동체에서 치과의사로 섬기는 아내 니나와 다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의지의 표현임을 엄숙히 확인하는가?” 기도와 토의를 거친 후에 구성원들은 이 투표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의사를 종이에 적어 투표용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나의 확신과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 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교회의 사랑과 일치에 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유일한 부르심이다. 이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인류 전체 앞에서 나의 국민과 조국 그리고 정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이 정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소명이 다르며 이는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친애하는 통치자인 힌덴부르크와 아돌프 히틀러에게 주신 부르심으로서 나의 것과는 다르다.’

당시 신문은 이런 투표를 찬성으로 간주하여 보도했다. 그러나 5일 후 이 작은 공동체는 140명이 넘는 무장 나치 친위대와 게슈타포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sup>1</sup>

**여** 기서 “다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정부가 임무를 다하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도하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로마서 13:1-5). 이들은 정부의 지도자들을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는 이”로 여겼다. 이웃과 적(이 경우 히틀러)을 모두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 표현은 국가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인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진리를 알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디모테전서 2: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 표현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가복음 12:17)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적용할 때 생기는 애매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천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권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주해 왔다. 이런 상황은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인 브루더호프처럼 초기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비폭력에 헌신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에도 적용된다(사도행전 2, 4장).

나는 1997년 이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내왔고, 지난 18년간 공동체의 법무 자문 위원으로 일해 왔다. 그러면서 나는 브루더호프가 지난 100년의 역사에 걸쳐 어떻게 정부와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 기본적 신념들

### 세상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편적 몸의 일부에 불과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르심은 초대 교회에 의해 형성되었고 16세기 급진적 종교개혁 당시 아나뱃티스트들이 이어온 나눔의 제자도에 기초를 둔다.<sup>2</sup> 자발적 가난이라는 그들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폭력의 뿌리인(폭력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게 된다) 돈의 지배에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삶을 추구한다(디모테전서 6:10).

우리는 이 땅 국가의 시민이지만, 국가를 넘어서고 국경에도 매이지 않는 교회의 한 부분이다. 우리 공동체의 100년 역사 동안 ‘국가’는 때로 독일, 리히텐슈타인, 영국,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국, 호주 그리고 미국을 의미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부인함 없이, 우리의 첫 충성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가오는

1. 다음 참조. Thomas Nauerth, Zeugnis, Liebe und Widerstand: Der Rhönbruderhof 1933-1937 (Schöningh, 2017). 다음 자료 참조. An Embassy Besieged: The Story of a Christian Community in Nazi Germany (Wipf and Stock, 2010).

2. 이 부분 전체를 읽으려면 다음 참조. John D. Roth., The Anabaptist Vision of Politics

하나님 나라에 있다. 신약성경 히브리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히브리서 13:14).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왕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는 믿음이다. 신약에 따르면, 현재의 역사적 상황은 역설적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적들 모두가 항복한 것은 아닌 상태이다(고린도전서 15:20-28). 하늘과 땅 모두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세상적인 국가들의 속성)을 이기셨다. 예수의 교회는 그분이 시작한 일이 완결되는 때를 기다린다(빌립보서 1:6).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실현되는 때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잔존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겠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당신의 통치가 어떤 모습일지 전조를 보여 주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sup>3</sup>

## 국가의 역할

**우리는 평화와 기본적인 정의**의 유지를 위한 행정 당국의 합법적인 운영을 존중한다(로마서 13:4). 그리스도 성령의 통치 아래 놓인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국가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공상적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다. 공동체 설립자 에버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교회는 기존의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 국가 권위와 사법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살인과 증오, 거짓과 속임, 부정의와 불순결을 막기 위해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그 제한과 한계를 인식하는 전제에서 세

상의 질서를 존중합니다.”<sup>4</sup>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은 당연할 귀결이다(로마서 13:1-5).

일정한 지점까지 그러하다. 아나뱃티스트 지도자인 피터 리데만은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 헤세주 통치자 필립 왕자에게 쓴 1524년 변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배자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는 않았다. 리데만은 행정 당국 권위의 한계를 선포하며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양심과 우리의 부르심에 반하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사도행전 5:29).

##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직위를 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련된 어떠한 직위에도 관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찰, 전쟁 그리고 사형제도 등이 포함된다. 브루더호프의 믿음의 선언인 《믿음과 소명》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나 판사, 배심원 등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자유, 시민권이나 여타 권리를 관장하는 자리를 직접 맡아 공권력을 행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의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관이나 군인들처럼, 폭력적인 공격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들을 깊이 존경한다. 비록 나 또한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겠지만(요한복음 15:13),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보기는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 살인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전도자인 미카엘 자틀러가 1529년 술라이다임 신앙고백에서 표현했듯 말이다.

같은 그리스도의 완전함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이다. 검은 사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죽이며, 선(善)한

3. N. T. Wright, *Simply Christian* (Harper Collins, 2006), 126.

4. Eberhard Arnold, “Jesus and the Future State,” public lecture, Berlin, April 1919 (Bruderhof Historical Archive, EA 19/1).



이들을 방어하고 지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선 또는 사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악함에 대항하여 칼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검의 폭력을 금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권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주인행세를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마태복음 20:25-28 참조).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공직에 출마하지 않지만 준비위원회 또는 프로젝트팀이나 지역의 소방대와 구급대 등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선출직을 유지하거나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시도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절대적 우선성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에버하르트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 “정부의 직책을 맡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로마 황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바로 거절했던 것입니다.”<sup>5</sup>

### 그리스도의 평화주의는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와 다르다.

이러한 기독교적 평화주의는 정부에 의한 치명적인 폭력 사용이나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가톨릭 교회와 주류 개신교계 교회에서 보통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 비폭력을 기대하는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용어의 모순)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인간성의 선함과 인류의 진보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념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속죄되지 않은 세상에서 죄와 악의 실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결여하



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의 길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한 검의 사용을 반대하는 대신 영적 전쟁의 무기를 선호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무기들은 상호 헌신과 권면으로, 공적 영역에서는 기도,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추방이나 심지어 순교를 무릅쓰고 양심에 따르는 시민 불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적 제어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안에서 최고 정의를 위하여 변론하고 최소한의 폭력적 방법을 옹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상주의가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회와 세속 사회 사이에는 다른 기준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침략적 전쟁과 사형제도를 반대하면서 가능한 최대한의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모든 강제력이 제거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가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난한 사람, 고아, 외국인, 노약자 등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환경이 허용하는 한 실제적인 선을 증진하는 길을 찾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코 잊지 않는다. 때로 교회는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세속 인문주의에서 표현되는 생각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준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실로 다가갈 수 있다. 왜냐

호주의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뉴 사우스 웨일즈 농촌 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5. Eberhard Arnold, remarks to a Bruderhof members' meeting, January 1931 (Bruderhof Historical Archive, EA 35/31).



하면 비록 이러한 것들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인간 존재의 진실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들은 교회가 국가 권력 남용을 포함하여 세상의 잘못을 비판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할 경우, 그것들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실현은 세계적인 제국의 진보로 성취되지 않으며 단지 계몽될 뿐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이룰 때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그분이 영광으로 다시 올 때 인류가 새로워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좌든 우든 이상향적 국가에 대한 환상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상상이나 있는 과거 기독교 세계의 황금 시기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유희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sup>6</sup>

6. 미국의 유토피아 진보주의의 역사와 사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Richard Rorty, *Achieving Our Country*(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교회의 사명

### 정치를 본연의 자리에 두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보임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속죄 받지 못한 사회 질서와 국가에 하나님 나라의 징후를 증거한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을 찾고 그들의 종교 자유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불의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하며,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촉구함으로써 국가에 책임을 수행하고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때로 국가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국가가 부패했거나 시민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경우이다.

물론 우리는 국가가(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통치자 아래의 정치 조직체)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상태에 이르게 될 일은 없다는 것을 안다. 아나뱃티스트들은 자유 민주주의가(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나 다른 정부 체계들도 역시) 궁극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 적은 없다. 패트릭 드닌, 아드리언 버물 같은 탈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은 자유주의가 실패했다고 봤는데 이런 시각은 아나뱃티스트의 관점



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7</sup>

## 종교의 자유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은** 일찍이 종교 자유의 길을 닦았다.<sup>8</sup> 미국의 권리장전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아나뱃티스트들은 초기 교부들이 주장했던 국가의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믿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주창했다. 1527년 아나뱃티스트의 지도자 한스 덴크는 이렇게 적었다.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이미 아나뱃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지상 권력을 위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패하게 하고, 정치적 영역에 전적인 충성을 부당하게 강요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나뱃티스트들의 이런 종교 자유의 원칙은 뒷날 미국 헌법에 반영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설립 주선과 국교 선정 금지조항은 국가가 종교의 믿음과 실천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정한 교리를 도입함으로써 종교를 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sup>9</sup>

또한 아나뱃티스트의 신념의 연속 선상에서 이런 금지가 누룩으로서의 종교 역할이 공공의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71년 미연방대법원이 다른 레몬 대 커츠맨 사건은 대중의 이해를 흐리게 했고, 긴장한 하위 법원들과 국가 관리들로 하여

금민간의 영역에서 종교가 설 자리를 잃도록 지지하게 했다.<sup>10</sup> 교회는 국가에 우선하며 구조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리를 두고 신자들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불쾌감이나 실용주의적인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사도행전 16:37).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에게 자신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때, 기독교인들은 국가로 하여금 정당한 역할을 하도록 섬김을 베푸는 것이다.

## 실제: 브루더호프의 사례들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선언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존재 자체로 세상에 크게 외치는 바가 있다. 이는 특별히 온전한 제자도의 삶과 겸손한 섬김의 헌신(마가복음 20:25-28), 절제된 성(性, 마태복음 5:28)과 소유물을 포기(누가복음 12:13-24)한 삶을 의미한다. 만약 사회정치적 변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 마음과 정신이 닿는 데서 출발한다면 교회는 이를 증거하는 이의 진실성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브루더호프에서 우리의 임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부르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하거나, 우리의 삶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들 나름대로(그들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삶의 모든 측면을 요구하는 복음 증거의 진실성은 정부와 우리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때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강제적이고 때로는 자발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때로 적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교회가 공격적인 부당함에 대해 권위를 행사할 때, 국가는 골치 아

10. 사람들은 종종 제퍼슨의 유명한 말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을 오해한다. 제퍼슨의 이 ‘벽’이라는 은유는 믿음과 정부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 기관들과 국가 사이의 분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7. 예를 들어 드넨(Deneen)의 다음 최근 저서를 참조. Why Liberalism Failed(Yale University Press, 2018) and Vermeule’s review “Integration from Within” in American Affairs, Spring 2018, org.  
8. Harold Bender, “The Anabaptists and Religious Liberty in the Sixteenth Century,” Mennonite Quarterly Review 29 (1955), 85.  
9. 결국 우리의 아나뱃티스트 선조들은 유아세례와 현재설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지목 받아 정부 관리들에 의해 화형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Thielemann von Bracht, Martyrs Mirror(first published 1659), trans. Joseph Sohm. 또한 다음을 참조. “Church Autonomy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in James Serritella, ed., Religious Structures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06), 133.



프레드 굿윈과 영국의 브루더호프의 멤버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진.

픈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어 왔을까?

### 강제적 상호작용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 되고** 법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국가와 강제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아동보호법이나 예방접종법)이나 세금 납부가 그것이다. 학교, 사업, 병원, 치과, 농장 등의 업무를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21절과 로마서 13장 11절의 요구를 적용하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국가의 요구가 양심과 상충할 때 기독교인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이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비폭력에 헌신한 교회로서 군대 징집 역시 위에 말한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1930년대에 징집 대상자였던 브루더호프의 젊은이들은 히틀러의 군대에 복무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망명을 택했다. 1937년 계슈타포에 의해 강제 해산된 브루더호프는 영국에서 다시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에 다시 군대 징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당시에는 많은 영국인들이 “전쟁의 근

원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방법을 찾기 위해 브루더호프에 합류하는 상황이었다.<sup>12</sup>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을 때, 그들은 군 심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변론해야 했다.

이 젊은이들 중 한 명은 케임브리지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 프레드 굿윈이었다. 그는 조사위원회에서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가가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브루더호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동료들을 도우며...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 ... 평화로운 때나 전시 때나 신약성경과 초대교회의 모범에 근거한 공동체 생활의 증인으로서 내 몫을 다 하길 바란다.”

히틀러를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도 일이지만, 히틀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더한 일이다. 평화주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나뱃티즘의 한 면모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서약협회(Peace Pledge Union)의 창립자인 딕 셰퍼드가 말했듯이 “기독교 평화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믿음이다. 부도덕한 무관심이나 비겁함 같은 의미의 침묵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 근거는 공리(功利; utilitarian)적이지 않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삶의 건설적인 철학이다. 무조건 악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sup>13</sup>

프레드 굿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위를 부여 받았고, 모든 브루더호프 남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영국 브루더호프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억류 대상인 적국 외국인으로 분류되었

11. 사실 그저 법률을 준수하는 것만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가 갈망하는 도덕과 윤리, 행동의 기준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공동노동’ - 《우리의 믿음과 소명》(Brudershof.com) 그리고 존 로즈, “기독교 사업이란 무슨 뜻인가?”(계간쟁기), 2019년 여름호

12. 이 표현은 딕 셰퍼드 목사의 평화서약협회 140,000명 회원이 서명한 한 문서의 일부이며 웨이커 창립자인 조지 폭스가 1651년 군사 위원회 직 제안을 받고 다음처럼 답변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나는 일체의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삶과 힘을 내주는 가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13. “The Christian Attitude to War,” sermon preached 1937, printed in Walters, Kerry, ed., We Say No! The Plain Man’s Guide to Pacifism (Wipf and Stock, 2013), 132.



다. 이때 놀랍게도 영국 정부의 선처로 징병대상 연령자를 포함한 브루더호프의 모든 구성원들이 억류되는 대신 한 그룹으로서 출국할 가능성을 제안받았다.<sup>14</sup> 브루더호프의 목적으로 파라과이를 선택한 것은 부분적으로 메노나이트가 병역 면제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징집 때 수십 명의 젊은 브루더호프 남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다시금 변론했다. 병역신고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져 브루더호프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이 대체 복무로 인정되었다.

## 자발적 상호작용

**다섯 자녀의 아버지이며 변호사로서 나는 종종 국기에 대한 맹세로 개막되는 민간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고등학교 축구팀의 코치로서 애국가로 시작하는 많은 경기에 참석해왔다. 애국가 제창은 존중하지만 다른 브루더호프 멤버들처럼 나도 동참은 하지 않는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지만 우리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축제의 장에서 하는 거부행위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권위와 나라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을 존중할지라도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충성 대상은 하나님 나라라고 여긴다.**

이런 점을 두고 지나치게 세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이 인식했듯이 종교의식의 성격을 지닌 애국적 관행을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독교인은 항상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선언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1930년대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하일 히틀러 경례(‘히틀러로부터 구원을’로 이해할 수 있는) 사용을 결연히 거부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례를 명백히 우상숭배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다른 기독교인들 중에는(디트리히 본회퍼나 칼 바르트와 같은 반나치 영웅들조차도) 일관되게

이 경례를 거절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sup>15</sup> 확실히 이것은 당시에 기독교인의 양심을 둔하게 만드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

반대로 투표는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문제다. 투표의 여부와 방법은 브루더호프 멤버에게 양심의 질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때때로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는다.<sup>16</sup> 투표에 참여한 신자는 과연 후보자가 나중에 내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연루되는 걸까? 전쟁광이거나 타락한 후보에 반대 투표하지 않는 것은 무작위의 죄인가? 어떤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후보의 정책이 우리 지역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방선거 투표에만 참여한다. 어떤 이들은 투표가 정치적 행사를 자제하는 아나뱃티스트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보고, 다른 이들은 투표를 유용한 증거 수단으로 본다. 이곳 뉴욕주에서 우리는 지역 학교의 납세자로서 최선을 다해 이해한 바에 따라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예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시급한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 부패한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강압적인 힘으로 종교적 비전을 강요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는다. 동시에, 정치적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사실상 현상유지에 투표하는 셈이 되고, 개인과 집단적 무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브루더호프는 정책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해 보일 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여하더라도 권력의 유혹에 경각심을 갖고, 심지어 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정부에 관여하는 것이 항상 기독교인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5. Nauwerth, Zeugnis, Liebe und Widerstand, 286.

16. 호주에 사는 브루더호프 멤버들에게 투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연방 선거와 국민투표는 의무이며 불참시 벌금이 부과된다.

14. Ian Randall, A Christian Peace Experiment: The Bruderhof Community in Britain, 1933-1942 (Cascade, 2018).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부 브루더호프 멤버는 자신이 선택한 정당에 등록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기독교인의 선택'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분명히 하고 있다. 타협은 정치의 속성이기에 영원한 진리에 관해 답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특정 당의 강령 전체를 채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또한 신자들 내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잉된 당파적 감정의 노출을 경계한다. 우리 공동체는 정당과 제휴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선출된 관리들과 다른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열린 대화와 신뢰의 환경에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경험상,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다른 기독교인들, 그리고 실제로 타 신앙인이나 무신론자와 공통점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하기에 교회는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빈곤과 인종적 부당성을 퇴치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슈라면, 결혼이라는 신성한 유대감과 출산의 목적도 분명히 그러하다. 그 견해들 중 일부는 자유주의적으로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물에 대한 복음의 충실함이다.

그래서 브루더호프 목회자들은 재소자 사역뿐 아니라 법 집행자들의 목회자 역할도 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 깨기(Breaking The Cycle)'는 우리가 학교와 다른 포럼에 제공하는 비폭력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sup>17</sup> 우리는 낙태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관 계에 대한 교육에 투자한다.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안락사를 뜻함 - 율건이)을 반대하는 동시에, 지역 호스피스나 노인 요양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복잡한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도 멕시코 국경지역의 수용소와 중동 난민 캠프의 아동 친화적 공간에 일꾼들을 지원할 수 있다.

17. 다음 웹 페이지 참조. [breakingthecycle.com](http://breakingthecycle.com).

## 적극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신자와 교회가** 양심에 따라 비타협적인 대응 여부를 분별해야 할 급박한 역사적 순간들이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국가의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모두를 지탱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교회의 관심사입니다. 교회의 과제는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을 위해 정치적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sup>18</sup>

4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국가들에게 정의를 보존할 권한을 주신다면 기독교인들은 부당한 법을 향한 대항을 옹호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의 다른 교회들처럼 브루더호프도 시민권운동의 발전을 밀접하게 따랐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남부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동등한 투표권과 차별 철폐와 같은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공동체가 늘 망설이던 질문, 즉 정책 문제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 토론했다. 결국 우리는 참가해야 한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대표단을 엘라베마주 셀마와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보내 킹 목사와 나란히 행진했다. 1964년 5월 브루더호프 목회자 드와이트 블라우가 보낸 편지에서 킹 목사는 이렇게 답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나라는 실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류의 진정한 형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해외 전쟁 참여 반대와 국내의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해로움에 항

18. Arnold, “Jesus and the Future State.”



의하기 위해 정부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립 학교 환경 개선을 포함한 아동과 가정에 이익이 되는 정책, 사형제도와 안락사 반대, 그리고 일관된 삶의 윤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 인종들에게 불공평하게 가중된 사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브루더호프 학교의 수업들은 일상적으로 런던, 캔버라, 워싱턴, 뉴욕, 알바니 같은 국가 의 수도들과 주의 수도들을 현장 답사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해 배우고 현재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학교의 청소년들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옥스팜과 같은 단체들을 지지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정생활, 취약계층과 노인 돌봄, 자녀 중심 교육, 노동의 존엄성, 절제 있는 소비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사회에 증언한다. 우리의 관심사에는 종교적 자유, 즉 생명의 신성함과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에 대한 존중과 같은 영원한 진실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이런 증거를 위해 브루더호프는 종교와 상관없이 정부 내외 협력 인사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손발이 되어 믿음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는데 이는 적십자사,

가톨릭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보이 걸 스카우트 연맹 같은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

**1933년 독일 국민투표의 여파로** 나치 친위대들은 하루 종일 헤세 지방의 공동체 건물들을 뒤졌고, 브루더호프 멤버들을 차례로 심문했다. 그들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책과 서류를 압수당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브루더호프에게 이민을 떠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총통이 구상한 독일에 브루더호프가 설 자리는 없었다. 투표 당일 저녁 모임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매우 위험한 순간에 교회가 국가에 어떤 증거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가 한 개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사적 실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무기가 넘쳐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과 평화, 정의의 길을 대표함





브루더호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이브더칠드런 액션 네트워크와 협력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사진.

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소명이 더욱 필요합니다. 폭풍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둘러싸인 이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삶으로 이를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현 시대 마귀에 사로잡힌 종말적 사건들의 끔찍한 모습 앞에서 최종의 일치된 행동을 조용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와 신실함, 완전한 사랑과 용서, 완전한 선과 진리, 그리고 완전한 순복과 신뢰로 일치의 행동을 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37년 4월, 독일의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다시 급습되어 게슈타포의 명령에 의해 해산되었다.<sup>19</sup>

아나뱃티스트의 역사는 신자들이 양심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다시 난민이 되더라도 양심적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담성은 사유재산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삶의 실재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우선임을 표현하는 공동체

적 삶에 의해 강화된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장거리 경주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확신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장엄하게 묘사된 하나님의 정의가 약속된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 사회질서 안에 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날을 기약한다(이사야 11:9). ➤

19. 세 명의 멤버가 체포되었고(나중에 석방) 나머지 공동체원들에게는 24시간 내에 독일을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이에 관한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Emmy Barth, An Embassy Besieged.

# 앨커투트랙스 감옥의 순교자들

1차세계대전 당시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수감된  
평화주의자들의 편지들이 최근 새로 발견되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오랫동안 감추어져 온 미국 역사의 한 시대와  
오늘날의 종교 자유를 새롭게 조명한다.

1 926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미주리주 캔자스 시에 자유 기념비를 헌정할 때 15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다. 평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백 년 전 8월에 발발한 전쟁에 참전한 수백만 미국인을 기리기 위한 집회였다. 탑에는 “자유와 조국 수호를 위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라고 쓰여 있다.<sup>1</sup>

이 영광스러운 기념비에 포함되지 않은 네 명의 신병이 있었다. 사우스다코타 출신의 삼형제인 데이빗, 조세프, 마이클 호퍼와 조세프의 처남 야곱 위프였다. 농부였던 그들은 군복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앨커투트랙스 교도소의 쇠사슬에 매달리는 처지가 된다. 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런 행위를 막연히 “야만스럽고, 중세적”이라 했다. 조세프와 마이클 호퍼는 1918년 후반에 캔사스주 포트 레번워스 교도소에 이송된 후 사망한다. 미국의 자유 기념비가 캔사스시에 헌정되

기 8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그들의 죽음은 묵인됐다. 그들의 고향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프리만 커리어>는 8쪽 분량의 울프 크릭 지역 소식란에 두 사람의 죽음을 한 문장으로 다뤘다. “록포트의 야곱 호퍼의 두 아들이 워싱턴 캠프(원문 그대로 발췌)에서 사망했고, 고향에서 장례를 지냈다.”<sup>2</sup>

그러고는 바로 다음 칼럼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사는 “노이에-후터달 교회는 중국 선교사 바텔을 위해 종이 절단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샘 K. 호퍼가 부엌과 차고를 지었다”는 내용이었다.

조세프와 마이클의 묘석은 다른 후터라이트 공동체

---

드웨인 스톨츠퍼스는 고센 대학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며 “사슬에 묶인 평화주의자: 세계대전 중 후터라이트가 받은 박해 (Pacifists in Chains: The Persecution of Hutterites during the Great War)”의 작가이다.

남성 교우들의 묘석과 크기와 재질이 동일하지만, 록포트 공동체 묘소를 방문한 이들이라면 한 가지 다른 점을 보게 될 것이다. 묘석에 새겨진 '순교자'라는 문구이다.

**야**곱 위프와 데이빗, 조세프, 마이클 호퍼는 날이 흐린 1918년 5월 25일에 징집되었다. 야곱은 서른 살로 가장 연장자였고, 아내와 세 아이를 두었다. 그 아래인 데이빗은 스물여덟 살 기혼으로 다섯 자녀를 두었고, 마이클은 스물네 살로 아내 마리아와 갓 출산한 첫딸 메리의 아빠였다. 가장 어린 조세프는 스물세 살로 한 살, 두 살된 두 아이와 곧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었다. 징병 위원회는 그들에게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 가장인지 물었으나, 그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자신들이 부재할 경우에도 공동체 교회가 가족을 책임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솔직한 응답으로 확실한 군 면제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부양 자녀를 둔 가장은 징집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록포트 공동체의 남자 네 명은 공동체 집을 떠나 훌길로 나섰다.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전쟁터로 향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애국 집회를 열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집회의 주 강사인 수폴즈 지역의 한 판사는 워싱턴 캠프 루이스 기차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인류를 위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라고 했다.<sup>3</sup>

폭풍우가 치자 군중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들이 다시 모이자 고관들과 군인과 가족들은 악단의 활기찬 음악에 맞춰 기차역으로 행진했다. 누가 보더라도 알렉산드리아의 젊은이들은 입영 열차에 열정을 갖고 탑승하는 것 같았다. 이미 수백 명의 남자들은 승차하여 창밖으로 몸을 내밀며 손을 연신 흔들어들었다. 대다수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서부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모험의 시작이자 축제였다.

그러나 록포트 후터라이트에서 온 네 명과 근처 공동체에서 징집된 앤드류 벨츠는 다른 젊은이들과 달랐

다. 그들은 검정옷을 입고 수염을 길렀는데, 이는 세속과 분리하며 하나님의 평화로운 왕국을 공동체로 살며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이 후터라이트들은 목회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캠프에 보고는 하되 전쟁을 증진시키는 복무는 거부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군인으로서의 어떤 병무도 할 수 없었다. 군복무는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사우스다코다와 미국 전체가 애국심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런 확신은 경의를 받기는커녕 큰 적대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었다. 몇 주 전에는 근처 헨슨 카운티의 자유대출위원회가 전쟁 채권 매입을 거부한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수소 백 마리와 양 천 마리를 불법적으로 몰수했다. 1918년 5월 25일 이 남성들이 워싱턴 주 캠프 루이스로 떠난 당일, 사우스다코다 국방위원회는 독일어를 ‘적국의 언어’라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sup>4</sup>

후터라이트 사람들은 예배와 학교에서 독일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기에 이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호퍼 형제와 야곱 위프는 이를 안 상태에서 1,200명의 사우스다코다 젊은이들과 기차에 올라탔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캠프에 도착하는 대로 병무를 거부하리라는 신앙고백 증언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징병 서류를 받은 이들은 미국 정부에게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었다.

서부로 향하는 15량짜리 기차에서 네 명의 남자는 침실칸에서 다른 칸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들이 평화주의자이자 독일어를 사용하는 후터라이트임을 알아본 신병들은 야유했다. 결국 차장은 이들만의 작은 객실을 찾아주었다.

조세프 호퍼가 아내 마리아에게 보낸 첫 편지에는 토요일 저녁에 얻은 조용한 공간에 대한 안심의 표현이 담겨있었다.

*진심 어린 사랑의 입맞춤으로 시작하오. 지금,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연필로 몇 가지 쓰립니다. 우*



리가 이 광폭한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모릅시다.

어제저녁에 그들은 우리를 차량에서  
내몰아 다른 차량으로 쫓았다고. 거기마  
저 못 머물게 되자 작은 객실을 얻어 쥐  
야 했지. 그렇게 우리 넷은 우리끼리만  
있게 되었답니다. 앤드류 벨츠와 우  
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  
는 마음으로 인도받으며,  
선한 일로 위로를 받고 용  
기를 얻길 원했소. 그렇기  
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  
랑하는 당신, 우리는 평화 가  
운데 하나님 손에 몸을 맡기니, 하  
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날 늦게 기차가 몬태나 주디스 분지에 도착  
하자 누군가 객실문을 두들겼다. 한 무리의  
신병들이 후터라이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그중 두 사람은 고향에서 안면이 있던 윌  
리엄 덴포스와 제임스 알버트 몽고메리였다. 후터라이  
트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문을 열었다.  
그러자 덴포스와 몽고메리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 차례로 후터라이트들의 수염과 머리를 밀  
어 버렸다. 객실에 난입한 이들은 후터라이트들을 정  
규군 대열로 환영하기 위한 “무료 이발” 서비스였다고  
했으나 후터라이트들에게는 충격적인 폭행이었다.<sup>5</sup>

이런 일이 있는 직후에 마이클 호퍼는 아내 마리아  
에게 편지를 썼다.

몬태나 주디스 분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에게 내  
리라고 했소. 우리는 하차를 거부하며 지휘관이 직  
접 명령하지 않는 한 듣지 않겠다고 했지. 그러자 그  
들이 직접 왔다고. 그게 덴포스와 몽고메리였소. 야

곱 위프에게 모두 내려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명했  
지. 그래서 야곱 위프가 내렸소. 그들은 야곱을 기  
다렸다가 앞에 있는 다른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그  
의 머리와 수염은 완전히 깎인 상태였소. 그들은 그  
런 식으로 우리를 다뤘소.

구세주께서 우리 이전에 본이 되셨으니 그의 발자  
국을 따라가야 하오. 정말 큰 고통에 처했기 때문이  
라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앞일을 아신다고.

기차는 며칠 뒤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했다. 캠프 루이  
스는 7만 에이커 규모의 인상적인 신병훈련소로 서부  
전역의 신병들이 모여들었다. 1917년 여름 내내 1만 명  
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1,757개의 건물과 50마일의 도  
로, 37마일의 수도관이 연결된 사실상의 도시였다. 5월  
28일 화요일 호퍼 형제들과 야곱 위프는 수만 명이 훈  
련을 받고 있는 카키빛 도시에 입소했다. 그중 다수는  
유럽으로 파병되는 보병이었다.



**사**우스다코다의 후터라이트는 입소 즉시 영창 54호에 수감됐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알파벳 순서대로 줄을 서고, 성명, 출신지, 다른 기본 정보들을 포함한 입대 배치서를 준비해야 했다. 그들은 이런 절차가 미국 군대의 군인이 되는 길임을 알아차리곤 줄외로 비켜서며 “군인 성명서”라고 쓰인 입대 배치서 작성을 거부했다. 군관들은 네 남자에게 명령을 이행하도록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뉴턴 베이커 전시 장관은 각 남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길 기대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도 식당이나 유지 보수 같은 일에 참여해야 했다. 캠프 지휘관들은 당연히 캠프 생활 참여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분노했다.

캠프 루이스가 전쟁을 대비하는 동안 후터라이트 형제들은 영창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은 데이빗 호퍼가 영창에서 아내 애나에게 쓴 편지다.

당신은 집과 농장,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거요. 난 차마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 차례 심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 서약한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목숨을 대가로 치를 것이요. 우리 구세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글을 마쳐야 한다고요. 뭔가를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하거든. 자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요. 우리는 5년에서 25년 사이의 감옥형으로 군법재판에 회부되었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서두른다면 뭔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소.

캠프 당국은 후터라이트 형제들을 명령 불복종 혐의, 두 가지의 전시 범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군법재판에서 장교들은 네 남자에게 줄을 세워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도록 설득한 자신들의 노력을 피력했다. 야곱 위프가 첫 피고인으로 증언대에 섰다. 모국어가 독일어인 데다 초등 교육만 받은 농부가 군법관들 앞에 섰다. 검사는 그들이 왜 군복무를 거부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문: 군복무 중 비전투 부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답: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문: 이유는?

답: 글썄요, 그건 어쨌거나 모두 전쟁을 위한 거잖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농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니?

답: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문: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군인도 포함되나?

답: 네. 그들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문: 만약 당신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볼 의무대 같은 곳에 복무한다면, 당신의 양심과 교회의 가르침이 그것을 허락하겠는가?

답: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기에 싸워야 하고 그게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 주변에 부상당한 군인들이 있어도 도울 수 없다고? 그들이 회복되어 전쟁터로 돌아갈까 두려워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건가?

답: 글썄요, 전쟁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문: 정부가 지정한 농장에 배치되어 군인들을 위해

밑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가?

답: 아니요.

그러자 검사는 비폭력에 대한 의지가 가정까지 확대되는지 알고 싶었다.

문: 당신의 종교는 싸움을 허용하는가?

답: 아니요.

문: 주먹질도 안 한다고?

답: 글썄요, 우리가 천사는 아니니 사내아이들이 다들 때도 있고 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이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문: 그렇다면 어떤 자가 네 누이를 공격하거나 폭행을 저지른다면 당신은 싸울 건가?

답: 아니요.

문: 죽일 텐가?

답: 아니요.

문: 그럼, 어떻게 하겠나?

답: 일단 동생을 떼어낼 수 있다면, 그자를 붙잡아야겠지요. 내가 남자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호퍼 형제들의 진술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제는 판결만 남았다. 데이빗 호퍼는 아내 애나에게 재판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정말 힘든 시험이었소. 사랑하는 당신, 이런 일은 우리가 아끼는 형제들과 아버지들과 원로들이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소. 우리같이 젊은 형제들이 믿음으로 수행할 일이지. 우리는 12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목소리와 지혜와 잔잔한 마음을 허락하셨지. 난 집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우리를 인도하실 거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아주 곤궁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판결은 재판이 끝난 지 5일 만에 내려졌는데, 캠프 루이스에 도착한 지 3주도 채 안 된 때였다. 네 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불명에 제대, 일체의 급여 손실과 감옥행이었다. 마이클 호퍼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토요일에 그들이 와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앨커투트 감옥에서 20년의 노역형을 받았음을 알려줬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 앞날을 아시지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허락하신 것이 무슨 일든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짐을 주시든 견딜 수 있는 출구 또한 마련해주실 겁니다... 슬픔에만 젖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와 고통이 더 어려워질 거요. 하나님께서 거기(앨커투트)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불을 통과할 때 불길이 태우지 않도록 곁에 계실 거라고 약속하셨소.

호퍼 형제와 야곱 위프는 전쟁 중에 군법회의에 회부된 504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일부였고, 재판 결과 503건의 유죄판결과 1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 중 약 142명은 메노나이트, 아미쉬, 후터라이트로 추정되었다. 한편, 캠프 루이스에 도착한 후 호퍼 형제와 야곱 위프로부터 분리됐던 앤드류 벨츠도 따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강제

로 설득하려 취해진 극단적인 물리적 조치들을 밝혔다. 찬물에 강제로 담기고, 피부가 굵히도록 바닥 판자에서 끌린 일 등이다. 결국 그는 군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하는 일이 아니라면 캠프 정원에서 혼자 일하기로 동의했다.

**캠**프 루이스에서 두 달을 지낸 7월 25일, 호퍼 형제와 야곱 위프는 앨커투트로 떠났다. 둘씩 사슬에 묶여, 무장한 소위 네 명의 호위를 받으며 이틀 뒤 샌프란시스코만의 악명 높은 섬에 도착했다. 별칭이 '더 록(바위)'이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징계 병영, 태평양 지부'로 지정된 앨커투트는 군범죄자 수용소 세 곳 중 한 곳이었으며, 자유롭게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령관인 개러드 대령의 지휘 아래, 수감자들은('제자'로 불림) 직업훈련 프로그램, 클래식 음악회, 4,600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어울리지 않게 1917년 레이디스 홈 저널 전체 세트가 있었다)을 즐겨 찾았다. 그러나 네 명의 후터라이트들도 곧 알아챘듯, 이 자유는 '태만자'라 경멸받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네 명의 남자는 섬 꼭대기 감옥으로 길게 이어진 급커브 길을 올랐다. 그 안에서 그들은 제복을 입거나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네 명은 2주 동안 빵과 물만 나오는 독방, 구덩이에 감금되었고 그들의 족쇄는 감방 철창에 채워졌다.

교도관들은 이들을 층층이 연결된 감방 복도의 계단을 따라 '구덩이'로 불리는 지하 감옥의 독방으로 데려갔다. 가장 높은 곳이 1.8미터인 경사진 벽돌 아치를 지나 들어간 감방은 1.95미터 너비에 2.5미터 깊이었다. 감방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들은 바닥에 놓여 있는 제복 입기를 거부했다. 첫 며칠 동안 그들은 매일 반컵의 물만 받았을 뿐, 음식은 받지 못했다.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문 창살에 두 손이 교차된 채 쇠사슬로 묶였다. 쇠사슬은 발가락만 바닥에 닿도록 당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수감 높이 매달기'로 알려진 역사적 고문 기술이었다. 데이빗 호퍼는 팔



의 통증을 덜기 위해 변기통을 가까이 당겨 위에 올려서려고 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어둠 속에 살던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간수들의 감시를 받았다. 적어도 한 번 간수들은 남성들의 팔과 등을 채찍으로 후려쳤다. 처음 5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었던 네 남자는 간수들에 의해 바깥으로 인도되었으나 외투를 입을 수 없었다. 그들의 팔이 너무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프 호퍼가 아내 마리아에게 쓴 앨커투트즈 편지에는 대략적인 어려움만 나온다. 조세프는 그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독방의 상세한 경험을 생략했다. 어쩌면 교도관들이 편지 검열을 통해 불쾌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세부사항들을 삭제한 건 아닐까?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전히 건강하다 오... 소중한 사랑하는 당신, 난 여전히 감옥에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다*

*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 봅시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곳에서.*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모든 욕망을 뒤로 미루고, 세상의 증오와 조롱과 함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고통을 겪어야 함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아멘. 여긴 모든 게 이전 캠프처럼 군대 식이래요.*

호퍼 형제들(여기서는 15238번, 15239번, 15240번으로 호명)과 야곱 위프(15237번)가 앨커투트즈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속옷 차림으로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잠을 자거나, 쇠사슬을 매고 몇 시간씩 서 있거나, 간수에게 구타당했다는 언급이 편지에는 없다. 대신에 마이클 호퍼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당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서로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바라건대,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영원히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다음 세상에서 봅시다.*

**1** 918년 11월 11일 휴전의 날, 주민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올드 랭 사인(송년가)'을 연달아 부르며 종전을 기념했다. 그들은 전국을 휩쓸었던 전염병을 연상케 하는 독감용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 지금이야말로 뉴스를 만끽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휴전협정 3일 후, 후터라이트들은 다시 한 번 쇠사슬에 묶인 채 무장한 군관들의 경호를 받으며 포트 레번워스로 떠났다. 다음은 기차에서 마이클 호퍼가 쓴 마지막 편지이다.



마이클 호퍼의 아내가 보낸 딸의 손 그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아기 메리는 한 살 반이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포트 레번 위스로 가는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다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아실 거요. 우리는 고행 길을 걷고 또 걷는구려. 하나님께 간곡히 간청했다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면 다음 세상에서 보게 될 거요.

조세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편지를 마리아에게 보냈다.

우리가 휘갈겨 쓴 편지를 보면 당신도 우리 사기가 얼마나 저하됐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요. 우리는 마치 파도에 부딪치며, 바다가 죽은 사람을 토해내는 것 같은 때에 서 있소. 당신이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당신, 모든 게 이때를 위한 것이었나 봅시다. 기차가 너무 흔들려서 편지를 제대로 쓰기가 힘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렵니다. 당신과 우리 소중한 아이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는 바요.

이들은 11월 19일 자정 무렵 포트 레번위스에 도착했다.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증언들도 있지만, 데이빗 호퍼는 거리를 지나 병영까지 행군한 후 죄수복이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마이클과 조세프 호퍼는 도착 직후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데이빗 호퍼와 야곱 위프는 포트 레번위스의 작업을 거부함으로 다시 한 번 독방에 감금되었다.

마이클과 조세프의 병세가 악화되자 데이빗은 가족들에게 빨리 오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가족들은 11월 28일에 도착했다. 조세프는 간신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마이클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조세프에게 면회를 간 마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 교도소 관계자들은 마리아가 시체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계속 버텼고, 드디어 관에 다가갈 수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시신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며칠 후인 12월 2일 마이클 호퍼가 죽었다. 데이빗은 형제들의 시신과 함께 사우스다코타로 돌아가라고 석방되었다.

징계 병영의 외과 사무국은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폐렴으로 꼽았는데, 이는 당시 그들이 앨커테라즈에 수감되었을 때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스페인 독감이 감옥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터라이트 교회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몇 달 동안의 학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후터형제회 연대기에는 이 남성들이 “미군의 잔인한 학대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6</sup>

미국 정부의 어떤 대표자도 호퍼 형제의 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교회 신도들은 신속하게 윌슨 대통령과 뉴턴 베이커 전시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었고, 과도하게 열성적이었던 신병 모집 캠프의 장군들을 비난했다. 다른 목격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덜 관대했다.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s)의 국제란 편집인 프랭크 해리스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고귀한 신념을 위해 순교한 호퍼 형제와 그들이 당한 살인에 책임이 있는 베이커 장관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전시) 장관 앞으로 일련의 증거들이 날이면 날마다, 몇 달 연속으로 제출되었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한 달 후인 1918년 12월 6일에 베이커 장관은 잔인한 체벌을 금하는 명령과, 지하감옥 창살에 죄수들의 수감을 채우는 등의 가혹행위 금지를 내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베이커 장관은 이미 그러한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sup>7</sup>

베이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전시 중이라 신속한 군대 동원이 요구되는 상황을 해리스가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을 것이다. 베이커 자신은 유감 표명에 인색했다. “나도 [전쟁]의 참상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험과 의무의 자리보다 안전과 이익의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양심을 외치는 편에 선 그 누구도 동정할 수 없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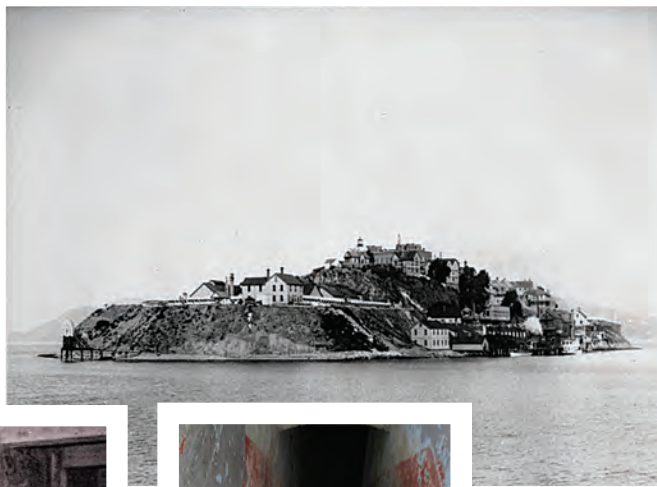
1919년 4월 야곱 위프는 마침내 ‘안전과 이익의 자리’에서 풀려나 동료들의 무덤을 직접 찾았다. 육군 법무장관실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그는 체포 후 11개월 만에 봄 파종 시간에 맞춰 귀가했다. ➤

- 
1. 인용 및 정보 출처: 자유 기념비(Liberty Memorial)의 국립 1차세계대전 박물관. [www.theworldwar.org](http://www.theworldwar.org).
  2. “Wolf Creek,” The Freeman Courier, December 5, 1918.
  3. The Alexandria Herald, May 31, 1918.
  4. The Alexandria Herald, May 31, 1918.
  5. The Alexandria Herald, June 21, 1918.
  6. The Chronicle of the Hutterian Brethren, vol. 1. (Rifton, NY: Plough Publishing, 1987), 807.
  7. Frank Harris, My Life and Loves (New York: Grove Press, 1963), 946.
  8. Reply from Newton D. Baker to socialist convention, Baker Papers, 1918 - 1919 (no date specified).



호퍼 형제와 야곱 위프가 군복 착용을 거부했던 워싱턴 캠프 루이스의 출입구. 커트랜드 커터, 1918년 1월, 포트 루이스 박물관 제공.

앨커투라즈 섬, "더 록", 1902-1905년. 앨커투라즈는 나중의 악명과는 달리 적어도 1918년에는 규정을 준수하는 죄수들에게 진보된 감옥으로 알려졌다. 책 W. 플레밍, 골든 게이트 NRA, 공원 기록 보관소.



좌측: 호퍼 형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네 명은 2주 동안 빵과 물만 나오는 독방, 구덩이에 감금되었고 그들의 족쇄는 감방 철창에 채워졌다. (몇 년 뒤 철창은 제거됐다.) [www.the-rock.sl/documentation/dungeons-of-alcatraz/](http://www.the-rock.sl/documentation/dungeons-of-alcatraz/)

우측: '구덩이'로 향하는 계단. 사진 드웨인 스틸츠퍼스제공.



사우스다코타주 록포트 공동체에 있는 묘석. 브루더호프 역사문서보관소 제공.





**이상규 교수 인터뷰**

# 한 걸음 물러서면 평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전통, 개혁 신학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교회사학자 이상규 교수로부터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이상규 백석대학 석좌교수는 고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여러 해 가르쳤고, 호주장로교회 선교회가 보유한 자료를 발굴해 한국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기도 했다. 2012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올해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다.



**쟁가: 어린 시절 한국전쟁 직후 한국 재건을 돕기 위해 찾아온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니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상규:** 저는 한국전쟁이 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살 때 아버지가 전쟁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41세 때 과부가 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성장했지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비교적 공부를 잘했지만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에 있는 메노나이트 중고등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 기구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Mennonite Central Committee)가 설립한 학교인데, 고아나 극빈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학비가 면제된 기숙학교였고 직업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쟁 중 10만여 명의 고아가 생겼고 많은 이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극빈자였으니 지원을 했지요. 정말 어렵게 합격을 해서 6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면제되었고, 교과서나 학용품, 생필품까지 무상으로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뿐이지요.

**쟁가: 그렇다면 이때 메노나이트 교회를 알게 되셨군요?**

**이상규:** 비록 이름뿐이지만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리나 역사 등은 잘 알지 못했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학교에서 교육 사업은 했지만 교파나 교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교목도 있었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앙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 상도교회 김이봉 원로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두레공동체를 설립하신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제가 고3때 부임하셨는데, 당시에는 강도사였습니다. 6년 동안 메노나이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소개하거나 선전하지 않았습다. 단 한 번 기억이 나는데, 교목이셨던 김이봉 목사님이 1년간 메노나이트 계통의 학교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설명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당시 선생님들을 보면서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이런 정신으로 사는가 보다' 짐작했을 뿐이지요. 이 학교는 1951년에 설립되어 1971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했고, 그 후에는 한국에서 철수하고 월남으로 옮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베트남을 돕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쟁가: 학교 생활하면서 메노나이트의 정신 혹은 신앙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상규:** 그때 한국에서 일하던 메노나이트 요원을 '선교사'가 아니라 'Pax Man(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0년간 75명이 한국에서 봉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소한 생활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찢어진 러닝셔츠를 입고 다니는 등 그냥 보기도도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일(노동)을 중시 여기는 모습입니다.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노동의 대가 없는 수입을 반대한다고 해요. 그때 학생들도 하루 2시간씩 일을 했어요. 교과과정이었고 예외는 없었어요. 고2, 3학년이 되면 대학 갈 준비도 해야 했지만,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하루 2시간씩 농장, 돈사, 채소밭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노동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화해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회의할 때 이견이 생기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해요. 의견이 일치되기까지 기다리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에서 고려하여 의견이 조정되면 실행한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협조하고 화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메노나이트 교회의 정신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검소한 삶의 방식을 배웠고, 지금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검소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쟁가: 초대교인들의 평화 신념에 관한 논문을 쓰셨는데,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군요.**

**이상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

서 과거 제게 은혜를 베풀어준 교회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16세기 개혁운동과 재세례파<sup>1</sup>를 공부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글도 쓰면서 평화주의 전통을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메노나이트 교회 밖에서 메노나이트 교회와 평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루터파 교회사가인 롤란드 베인튼이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이지요. 1930년대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평화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 ‘Pacifism’이라는 용어도 1930년 이전에는 백과사전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메노나이트 교회나 평화주의에 대한 기록이 교회사에서 별도 챕터<sup>2</sup>로 기술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로 관련 논문과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가: 그렇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평화 신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규:** 근본적으로 비폭력 평화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칼을 쓰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이나 산상보훈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저항 비폭력 평화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초기 교부들과 교회가 따

랐다고 볼 수 있고, 평화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의 평화 지향적인 가르침을 계승하려고 한 것이지요. 저는 학생 때 신장보훈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겹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는 말씀이나,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신앙은 ‘거절하지 않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은 여성분이 만나자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저의 철학이기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결혼할 상대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고 했어요. 제가 평소엔 생각하던 결혼관을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저와 결혼합시다” 하더라고요.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저의 철학이기에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웃음)

**쟁가: 그럼 지금 사모님께서 그 여성분이셨던 거군요?**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피아 구별이 없습니다. 적과 아군이 없는 거죠.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쟁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주의야말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제자도로 여겼던 초대교회에서 평화주의가 많이 발현되었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평화 신념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상규:** 아나뱃티스트는 16세기에 일어난 교파이긴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초대교회는 평화주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가치를 계승하려고 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는데, 평강이 바로 평화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1. ‘신자의 세례’를 실행에 옮긴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는 한국에서 재세례파로 알려져 왔다. 세계적으로는 아나뱃티스트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이 인터뷰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했다. -편집자  
2. 이상규 교수는 학계에서 처음으로 칼빈과 재세례파에 대한 긴 논문을 썼으며, 《교회개혁과 부흥운동》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장에서 재세례파의 개혁운동, 메노 시몬스와 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이들의 평화운동을 세 장에 걸쳐 소개했다. -편집자

에베소서 2장은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 화평, 평화, 평안’ 같은 단어들이 쓰였지만 헬라말로는 ‘에이레네(εἰρήνη)’,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보노라면 평화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평화 지향적인, ‘비폭력, 무저항, 양값지 않음’ 등 평화의 가치를

### 저는 재미난 말로

**4세기 이전에는 ‘나그네 공동체’,**

**4세기 이후에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돈 권력 명예를 탐한**

**‘안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4세기 이전 기독교, 곧 초기 기독교는**

**세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이야기했죠. 이런 점을 특히 강조한 3 교부가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 그리고 히폴리투스였습니다. 기독교는 주후 313년에 공인되었고, 392년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4세기를 거치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4세기를 전후하여 교회 역사를 구분하는데, 4세기 이후를 ‘콘스탄틴적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4세기 이후에는 첫 300여 년간 지녀온 절대 평화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제국 종교가 되고 보니 제국의 영토확장이나 전쟁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화주의는 서서히 상대평화주의로, 그리고 정당전쟁론으로 대치되지요. 저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평화

주의이고, 두 번째는 돈 혹은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놀라울 정도로 물질, 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재물을 공유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고 할 때 ‘팔아’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나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필요한 이를 돕는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실제로 첫 3세기 동안은 물질에 심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물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나그네 공동체’가 ‘안주 공동체’로 바뀐 것입니다. 물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정당화되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4세기 이전에는 ‘나그네 공동체’로 살았지만, 4세기 이후에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에 심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안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쟁기: 초기 기독교 모습은 현재 한국 기독교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재 독자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상규:** 책으로도 썼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두 다리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 땅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리적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욕에 찌들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나라를 도널드 크레이비이라는 미국 학자는 ‘Upside-down Kingdom’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힌 가치였다는 거지요.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쳐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 방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댄다? 그렇게 하고



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가치와는 상합할 수 없는 뒤바뀐 가치라는 것이지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를 ‘Upside-down Kingdom’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세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4세기 이후에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탐닉

학과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있으니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고, 이 개혁운동이 결국 루터파로 발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세 가지 형태의 개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 지역인 취리히를 중심으로 전개된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의 불어 사용 지역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전개된 칼빈의 개혁운동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아나뱃티스트(재세례파) 운동인데, 본래 이들은 츠빙글리와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두 다리를 두고 있었지만,**  
**생각은 이 땅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이 땅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들은 츠빙글리의 개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이 지나치게 국가 혹은 시의회 의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이 너무 완만했습니다. 안이하고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세례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의 결과이기도 한데, 유아세례가 국가와 교회를 연합해주는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츠빙글리와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재세례파운동이라 불리는 ‘스위스형제단’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성직-평신도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며 성인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유아세례는 당시 국가 교회를 지탱해 주었는데, 유아세례를 거부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태어나면 국민이고 유아세례를 받으면 바로 신자가 됐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통합되어 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없는 (이들의 주장) 유아세례는 거부하고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 곧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를 주장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원래적 가치를 상실했지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취리히의 에밀 부르너라는 신학자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키르헤(Kirche, 제도적 교회를 뜻한 독일어)로 바뀌면서 변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 권력, 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했던 본래적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쟁가: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이상규:** 저는 장로교인이고, 한국에도 아나뱃티스 신

스위스형제단 10여 명이 1525년 1월 21일 처음으로 재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재세례파(아나뱃티스트)의 시작이 됩니다. 재세례파는 단일 운동이 아니라 복수

운동입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 취리히와 북부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각기 다른 기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보통 7개 분파로 나뉘지만, 영국의 오웬 차드윅은 4가지 분파로 나눕니다. 그중 하나가 메노나이트입니다. 토마스 뮌처나 뮌스터 그룹으로 대표되는, 폭력을 용인하는 그룹도 있었으나 비교적 후기에 시작된 메노 시몬스의 메노나이트는 평화주의적 재세례파였습니다. 일부 과격한 그룹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아나뱃티스트들은 초대교회의 평화주의적 신앙전통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주류에 속하지 못한 소수 그룹이었지만, 천주교나 개신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국가권력의 탄압도 받았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 2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평화주의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쟁가: 과거 한국에서도 군사정권 때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반정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그때에 비하면 무척 발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정권하에서 평화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치부된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민간인 차원에서 평화라는 말을 하게 되었으니 큰 변화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토론이 요구되지만, 이런 논의가 일어난 현상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쟁가: 요즘 코로나 확산에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이상규:** 한국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6만 여 곳이 넘는 한국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정치지도자들

은 항상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원 64년 6월 로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시 로마의 14구역 중 세 구역이 전소되었고 7구역이 부분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휴양지에 있었지요. 화재 소식을 듣고 급하게 로마로 돌아온 네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오랜 정치권력의 수법입니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사실 규명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정보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영 방송마저도 불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판단을 중지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역사사지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사실(fact)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대 관심사이기에 일단 이렇게 답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묻기 마련이지만, 제 입장은 그런 책임소재 규명에서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갖는 것이 평화지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보다 상처받은 사람, 외적 정신적 피해자 혹은 확진자들을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료하고 치유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

**저는 그런 정치 공방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  
평화지향적인 자세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 관용, 용서, 치유라고 봅니다.**

---

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쟁가: 초기교회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대응 방식이 오늘 현실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규:** 네, 역사는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므로 과거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초기교회 당시 전염병이 두 차례 유행했습니다. 첫 번째 역병은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간 지속되었는데, 로마 인구

---

**진영 논리를 벗어나 사실(Fact)에  
근거하여 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를 가지면 좀 더  
평화로우 수 있지 않을까요?**

---

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249-252년 어간에 발생했습니다. 이때 비신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몰라 불안해 했습니다. 지금은 과학 영역에 속하지만 당시는 종교가 질병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불안했고, 불안하고 두려우니 도피를 최선의 방책으로 여겼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장성한 자식은 늙은 부모를 버렸습니다. 유기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버려진 아이들은 전염병보다 배고픔으로 죽어갔습니다. 노인들도 병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았고, 원인을 알았기에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도피하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나 두려움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도피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질병 확산에 누가 책임 있는가를 따지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배려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파라볼라노ι(παραβολάνοι),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고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이들이 메노나이트 교도들이었고,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루더호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브루더호프는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거주하는 나그네(resident aliens)'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책임소재를 추궁하기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헤아리며 사랑을 베푸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기: 바쁘신 가운데 여러 귀한 말씀, 조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

진행: 오케빈, 오지니. 본 인터뷰는 9월 24일 오후 6시 줌웨бин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잡지 지면에 맞추기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하거나 생략했습니다. -편집자





# 희망을 수업하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기독교의 희망과 인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쟁기출판의 피터 맘슨 편집장은 듀크 신학교의 스탠리 하우어워스 명예교수와 신앙인들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쟁기:** 올해 부활절에는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란 무얼 의미할까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 문이 닫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 폴라와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 힐에 있는 성공회 교회인 '성가족의 교회'에서 영성체

를 받는데요. 이번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즈시에서 드리는 예배에 갔습니다. 수폴즈의 주교께서 다른 한 분과 미사를 집전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도 기독교인을 하나로 묶는 그 단순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제단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 다. 주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고 확언합니다. 그 부분

---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듀크 대학교의 신학 윤리학, 법학 명예교수이며 50여 권의 저자이며 편집자이다.

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군요.

**쟁가: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된다고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하듯이 소셜 미디어가 직접 마주하는 동료애를 대체한다면 무엇을 잃는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사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우어워스: 현재 상황의 역설적인 점 중 하나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통해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공공롭게도 바이러스 대처 방안은 일종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사회적 몸짓(거리두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2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몸은 함께하는 수단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서로를 만지잖아요. 이제 그걸 못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 외로움은 현대성에 깊이 내재된 무언가 과장된 형태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 유포 이전에 우리의 일상적 행동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는, 즉 우리 자신의 삶은 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외로움이죠.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인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명 받은 바와 전염병 대처 방안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선 서로를 위한 최대의 섬김은 분리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역설적이죠.

## 인내라는 도전

**쟁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곁에 지인 하나 없이 혼자 죽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우어워스: 저는 “고통의 존재(Suffering Presence)”라는 책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첫 번째 도덕적 의무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낮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 스스로 매우 깊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이 혼자 죽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쟁가: 그동안 인내의 미덕에 관해 많이 쓰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작게나마 인내심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어워스: 맞습니다. “평화로운 왕국(The Peaceable Kingdom)”이라는 책에서 저는 희망과 인내가 기독교 미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희망을 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종말론적인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희망이 인내로 교육받지 못한다면 폭압적으로 되지요. 희망과 인내는 필연적으로 상관된 덕목입니다.

**쟁가: 메노나이트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의 끈기 있는 발효(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라는 책을 읽고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 선생님의 저서를 참고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의 선교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기술합니다. 복음 전도나 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희망을 살아냈다고요. 복음 전도와 봉사는 지금 당장 하기 어렵지요. 이웃 사랑이 참 요구되는 때인데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우어워스: 맞습니다. 인내는 진보를 향한 우리 헌신 탓에 현대가 잃어버린 매우 까다로운 미덕이지요. 우리는 조급함에 기반한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쟁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세속적인 권력에 지나치게 복종한다, 소명에 충실치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종교의 자유나 교회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우려하십니까?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까요?

하우어워스: 글썽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폐쇄가 비극적이지만 꼭 필요하고, 이웃 사랑의 몸짓이자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요. 우리는 모두가 공통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필요를 공통의 생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비기독교인들과 나뉘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짐을 지는 것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 잘 살기, 잘 죽기

**쟁가:** 이 전염병은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문자 그대로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고, 교회와 세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발견에 주목해야 할까요?

하우어워스: 사람들은 “상황이 전과 결코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상(正當)”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오래된 정상’을 제대로 발견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거든요. 진정한 ‘새로운 정상’은 부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2천 년 동안 그 변화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믿음에 충실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쟁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경솔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우어워스: 아니요. 죽음을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되지만, 죽음이 패배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국은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에 기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의학이 충분히 진보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우리를 공통의 삶 안에 하나로 결속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도전입니다. 죽음이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쟁가:** 아마도 그 진실은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걸 저는 뉴욕의 하트섬 뉴스 사진으로 봤습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족을 못 찾거나 매장할 형편이 안 되어 긴 참호 형태로 구덩이를 파내고, 구덩이 속에 쌓인 관들을 라이커스 섬 죄수들이 매장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하우어워스: 저는 이 대유행병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왔는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양로원으로 밀어 넣고 있죠. 저는 이번 여름에 여든 살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곤,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 속에 살면서 능률성에 전념하느라 오래된 지혜의 전통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말을 하며 우리를 돕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할 일이라곤 어린시절로 되돌아가는 거라며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책임감과 지혜를 박탈합니다. 만약 백 년 안에 기독교인들이 자





신의 아이나 노인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로 판명난다면 우리는 잘 했다는 소릴 듣게 될 겁니다.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살 만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통 공예 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절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답을 책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보고 배운 거지요. 현명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쟁가:** 지난 몇 주 동안 의료 윤리에 대해서, 특히 치료 받을 사람을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감염이 가장 컸던 지역의 의료 당국은 특정 연령 이상이나 장애인에게 인공호흡기나 ICU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우어워스:** 그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구체화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의 의료 개입은 단기간 동안 생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지요. 의사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환자를 살려두

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환자가 잘 죽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요구입니다. 보통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간호사들이죠.

**쟁가:** **기독교인으로서 죽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우어워스:** 죽음은 우리 삶의 확장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의 미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듯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 권력과 탈자유주의

**쟁가:** 이 대유행병이 증명한 한 가지는 개인이 지닌 자율성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한 가지는 연대가 절실합니다. 선생님은 자유주의, 특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평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주제와는 전혀 별개로 탈자유주의는 현재 기독교를 포함한 각계에서 점점 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파 진영의 패트릭 드닌과 로드 드레허, 좌파 진영의 판카지 미슈라와 낸시 프레이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탈자유주의적 순간”이라고 불리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며, 위험은 무엇일까요?

하우어워스: 저는 국가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탈자유주의자들은 우파든 좌파든 모두 국가에 대한 이론을 원합니다. 저는 정치 세계를 제 자신이 협상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수용합니다. 드닌과 드레허가 제 말을 인용한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자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자유주의 비판은 단지 정치 이론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일 정도로 결합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가 지난 2세기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무엇이 가치있는 삶을 만드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양성해 온 것을 아주 관심있게 봤습니다.

쟁기: 지역주의와 공동체주의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탈자유주의자들과 정치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국가가 진정한 행동을 할 거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가 권력을 휘두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피를 끓게 만들죠.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빠져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 캠페인이나 정책 해법에 흥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우어워스: 저도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치는 종종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끈기 있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선을 발견하게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지역주의 같은 것이 가톨릭 사회 회칙에서 강조되었지요.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이 가장 지역적인 사회집단이지요. 이 사회 회칙들은 가족이 도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침이 온다’, Shelby McQuilkin,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쟁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탈자유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버드의 아드리안 버물(Adrian Vermeule)이나 뉴욕 포스트의 소랍 아마리(Sohrab Ahman) 같은 사람들로 쟁기: 대표되는 가톨릭 통합주의(Catholic integralism: 영적 권력이 세속적 권력에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믿음.-옮긴이)입니다. 아나뱃티스트 잡지로서 저희는 결코 신성로마제국을 회복한다거나 기독교를 진흥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도덕적 기반을 바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우어워스: 물론 브루더호프는 종파주의자(sectarian)로 불립니다. 그런데 정말 종파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가톨릭 통합주의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브루더호프는 어떤 면에서 통합적인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공동체입니다.

**쟁가:** 저는 이 사람들 중 몇몇에게 "나도 통합주의자야." 라고 놀리곤 합니다. 저는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아나뱃티스트 통합주의를 신뢰합니다.

**하우어워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쟁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대화에서 종종 고개를 끄덕이며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방식에는 근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고나서 그들은 "하지만,"이라고 하며 다양한 이유로 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옹호하는지 이야기를 되돌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옹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하우어워스:** 권력은 극도로 유혹적입니다. 물론 권력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냐를 물어야 됩니다.

**쟁가:** 한 유명한 신약성서 학자는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해 생각할 때, 도저히 도약하기가 어렵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하우어워스:** 음, 저는 그 도약이 어떤 모습인지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요. 정당한 전쟁(Just War) 옹호자가 되고 싶다, 좋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기준에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하세요. 정당한 전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전쟁은 끔찍한 일이지만, 때로는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정의의 기준에 6 중의 4 정도만 충족시켜도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사고한다면 그들이 정말 제대로 심각하게 사고하고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옳다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우리는 세계대전을 1차세계도살, 2차세계도

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뭔가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담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소에는 금지시킨 일들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숨기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미대통령이 대유행병에 대한 투쟁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정당화 담론입니다.

**쟁가:** 정의에 대해 말하자면, 이 대유행은 경제적 불의에 대한 의문을 부각시켰습니다. 부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결정적 역할을 하지요. 만약 선생님이 카리브해에서 요트를 띄운 억만장자 데이비드 게펜이라면 무사하겠지요. 하지만 저희 지역의 공공 요양원의 일원이라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살인적 불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우어워스:** 우리는 이런 일이 늘상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습시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부 사회구성원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 이상, 우리는 행위와 삶으로 이 사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저를 복음주의 진영의 좌파라고 합니다. 저는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좌파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저 이 유별나게 이상한 세계에서 기독인들이 최선을 다해 충실히 협상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려고 애쓸 뿐입니다. 🐦

---

본 인터뷰는 2020년 4월 16일 영상 통화로 진행되었으며, 지면 분량에 맞추되 명확성을 위해 편집했다.



# 새끼 오리와 어린 물고기들

어린이 독자들에게 보내는 답장



## 이억배

《비무장 지대에 봄이 오면》 영문판으로  
미국도서관협회 2020 배첼더 어워드 어너리스트에  
선정된 이억배 작가가  
코로나 19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걱정하는 어린이 독자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억배 작가는 1960년에 용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2010년에는 '한중일평화그림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을 출판했다. 작품으로는 《솔이의 추석 이야기》, 《잘잘잘 123》,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외 다수가 있으며, 부모와 어린이들 대상으로 강연하며 평화를 일구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안성에서 동화 작가인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살고 있다.



이억배 선생님께

2020년 4월 20일

**책** 《비무장 지대에 봄이 오면》을 그려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잘 읽었어요. 부활절 맞기 바로 전에 저희 마을 마구간 한쪽에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알을 까고 나오는 오리들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저희 어항에는 새끼 물고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물고기의 입 안에서 알을 까고 나온 거예요. 이제는 바닥의 인조 해초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먹이를 먹으러 헤엄쳐 나와요.

요즘같이 힘든 때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 사시는데 걱정이 돼요. 저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사시는데 언제 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같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격리 기간이 끝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사라지는 날을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선생님 책 《비무장 지대에 봄이 오면》에 나오는 철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요?

안녕히 계세요.

원산하(10살), 창호(8살) 드림

산하, 창호에게

2020년 5월 1일

**건** 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요즘은 '그동안 잘 지냈니?'라는 인사말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전 세계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말이다. 나는 너희가 염려해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보내준 편지 반갑고 재미있게 잘 보았어. 너희들을 본 적이 없고 편지로만 만났지만 마치 이웃집에 사는 다정한 어린 친구처럼 느껴지는구나.

오리나 물고기 새끼들이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이었니? 사실 나는 아직도 오리나 물고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예전에 강아지나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기분과 비슷하겠지?

여기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어. 아이들은 온라인상이지만 학교생활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학도 준비하고 있단다.



지난주에는 나의 부모님 생일이 연이어 있었는데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전화로만 축하인사를 했다. 선물도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부모님들은 전화통화만으로도 좋아하셨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해 무척 서운해 하기도 하셨단다.

창밖을 내다보면 나무들에 새순이 돋고 꽃이 만발한 봄이 왔지만,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구나.

너희들이 걱정하듯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조차 식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오히려 못 만나는 시간만큼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만날 수 없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해 진다면 그때는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 어쨌든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만큼 너희들의 전화와 편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좋은 위로가 될 것 같구나.

산하야, 창호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물려주게 되어 미안하구나. 지금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 것은 모두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란단다.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한 것과 새것만 좋아하고 한정된 자원을 ping ping 써 대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로 이렇게 세계적인 감염병이 퍼진 거란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와 소동을 벌일지 걱정스럽구나.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



이역배



# 쟁기의 책들

마음밭을 일구는 책들



## 공동체로 사는 이유

에버하르트 아놀드 | 토머스 머튼 해설  
| 김순현 옮김 | 비아토르 | 172쪽 | 10,000원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설립자 에버하르트의  
체험적 공동체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에 관한 실천적 주석이자, 앞으로 세워  
질 모든 미래 공동체의 선언문.



## 성, 하나님, 결혼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원마루 옮김  
| 비아토르 | 312쪽 | 12,000원  
성과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혼과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을 분명한  
비전 안에 담은 책! \_제임스 패커



## 지금도 영원입니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 요한 크  
리스토프 블룸하르트 | 김성민, 고학준 옮김 |  
대장간 | 96쪽 | 8,000원  
어려운 시기, 당신에게 보내는 위로와 지혜.  
영원을 묵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뚫고 들어온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혁명

에버하르트 아놀드 | 박상중, 원마루, 전남식 옮  
김 | 비아토르 | 308쪽 | 13,800원  
사회적 불의를 목격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  
어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인간이 겪는 고통  
의 근본.  
원인을 무시하는 피상적인 대답에 지친 사  
람들에게 단순하고 예언적인 가르침을 통  
해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  
을 제시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 설립 100주  
년 기념 도서!



## 초기 그리스도인의 육성

에버하르트 아놀드 | 황의무 옮김  
| 대장간 | 336쪽 | 20,000원  
교회사가이기도 했던 에버하르트는 산상수훈  
에 기초한, 초대교회와 같은 삶이 독일, 아니 전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라고 확신했다.  
에버하르트가 보석처럼 수집했던 초대교회  
자료에는 교회의 '처음 모습'이 담겨 있다.  
1926년 출간된 이 책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  
후 한 세기에 걸친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다.



## 희망이 보이는 자리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원마루 옮김  
| 비아토르 | 200쪽 | 11,000원  
평화와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평  
생 헌신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그의 사후  
국내에서 출간된 첫 번째 책.  
'천국의 기쁨'은 종종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예  
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그걸 부단히 찾  
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사람에게 발견된다.

# 사무엘 루이스 가르시아 주교

## 제이슨 랜셀

어떤 이들은 사무엘 루이스 가르시아 주교를 위협한 과격분자로 여겨 “빨갱이 주교”라고 불렀다. 하지만 토착 원주민들에게 그는 친근한 “타틱”(원주민 말로 ‘아버지’)이었다.

루이스 주교는 1924년 10월 3일 멕시코 이라푸아토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노동자였던 그의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사제들을 탄압하고 죽이던 세속 정권 아래에서 장남인 루이스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봉헌했다. 루이스는 그레고리오 대학 졸업 후 1949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1960년 주교로 임명되어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산크리스토팔로 발령이 난다.

치아파스 커피 농장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토착 원주민을 본 루이스 주교는 “원주민들은 백인들과 동등하게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했다.

1968년에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곳은 해방신학의 발생지였다. 해방신학에 영감을 받은 루이스 주교는 성경을 원주민어로 번역하고, 2만 명이 넘는 원주민 전도사 네트워크를 조직해 신앙을 전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은 ... 복음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세계 문화에 “교회 교부들이 말씀의 씨앗(*semina verbi*)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원주민을 서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태생의 “오래된 종교”에서 “교회가 선포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명시적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루이스는 믿었다.

1993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했다. 루이스 주교를 비롯한 협정 반대자들은 이 협정이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하도록 기업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서에서 루이스 주교는 불의에 저항할 때도 폭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입장을 취하도록 도전한다. ... 우리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때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993년 마지막 날,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한 무장단체가 산크리스토팔과 다른 도시들을 점령해 라디오 방송국을 장악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라 부르며, “우리는 오백 년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한다. Ya Basta!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했다. 같은 날 저녁, 정부는 라디오 방송에서 루이스 주교와 사제들이 반란군을 선동했다고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정부의 무력 진압이 국제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중재자가 필요해졌고 루이스 주교에게 손을 내밀었다. 1996년, 사파티스타와 멕시코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1997년까지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루이스 주교는 1999년 은퇴 후 2011년 86세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루이스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약자의 옹호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비록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

제이슨 랜셀은 계간 <쟁기>의 ‘선구자들’ 꼭지에 그림을 그린다. 맞은 편 그림도 그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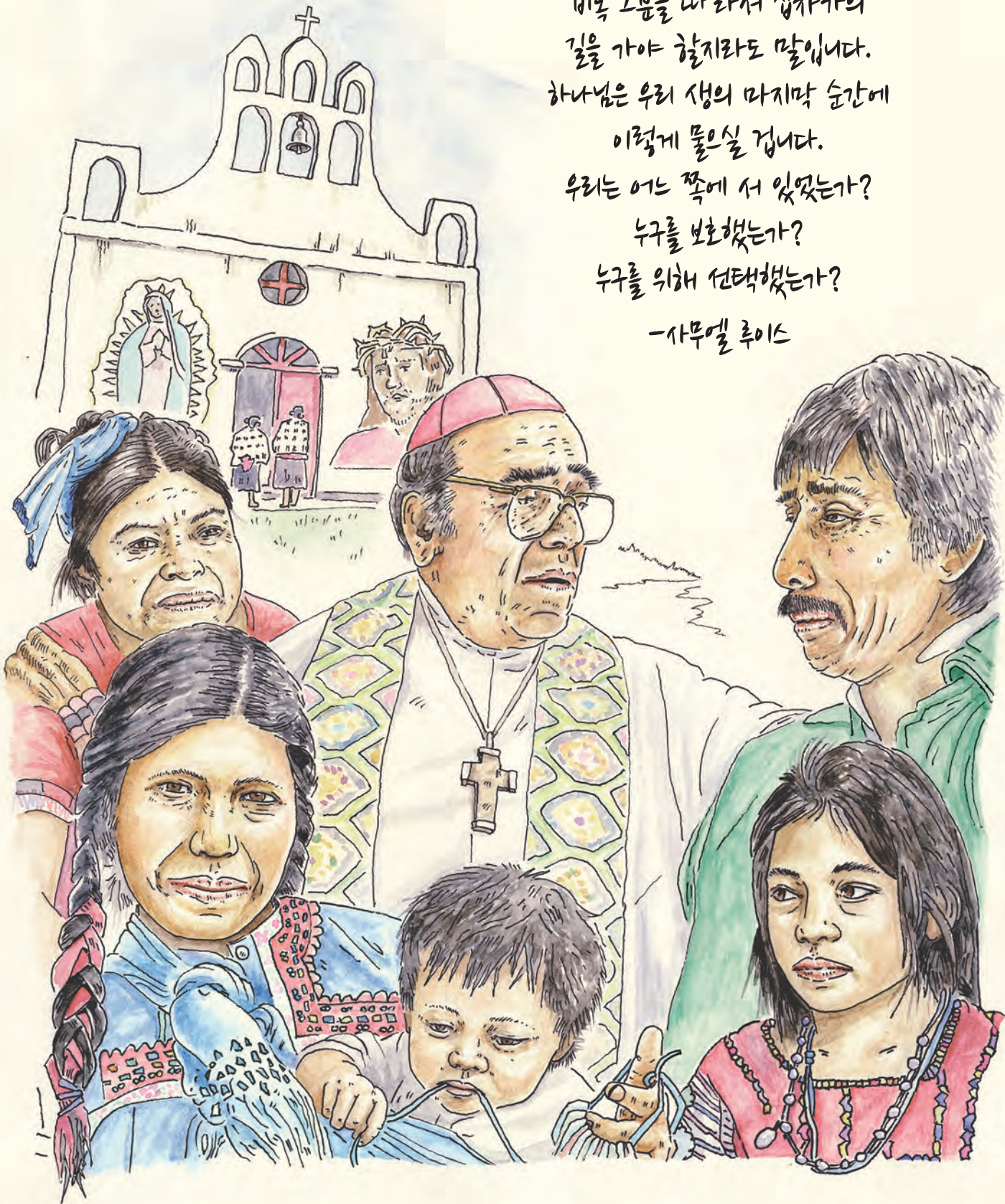
예수는 우리에게 약자의  
옹호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비록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었는가?

누구를 보호했는가?

누구를 위해 선택했는가?

-사무엘 루이스







요람 라이난(Yoram Raanan), 바미드바의 왕관(Bamidbar Crown, 사막의 이스라엘 사람들), 2018, 캔버스에 아크릴

높은 임금만을 얘기하는 해방이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더 많은 돈과 좋은 가격을 얻는 게 해방이라니!

정치적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는  
위대한 해방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온갖 불의의 뿌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일 뿐.

오스카 로메로, 살바도르의 대주교이며 순교자

##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www.plough.com/ko](http://www.plough.com/ko)

쟁기출판사

Walden, New York, USA  
Robertsbridge, East Sussex, UK  
Elsmore, NSW, Australia